

##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유홍준\* · 현성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구분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 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구분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단어:** 미혼 비율 증가, 경제적 자원, 성별, 결혼 가능성, 결혼 연기, 결혼적령기 연령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결혼시장의 양극화

### I. 문제제기

통계청(2010)이 최근 발표한 2009년 혼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혼 건수는 모두 31만 여 건으로 인구 천 명당 결혼건수(조혼인율)가 지난 1970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전공 교수 | yhjcti@hanmail.net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 선임연구원 | crave13@hanmail.net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6.2건이었다고 한다. 결혼 건수는 1996년의 43만 여 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인 한편, 2009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성이 31.6세, 여성이 28.7세로 가장 늦은 기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경제난과 취업난 등으로 20대 후반 인구의 결혼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에 나이가 많은 미혼남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졸업,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이 어렵고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혼외 출산을 터부시 하는 규범이 강할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함께 출산율은 1.1명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량(의 감소와 출산시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김승권, 2004). 출산량 감소의 경우에는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것에서, 출산시기의 변화는 가임기간 여성들의 미혼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에서 기인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 자녀 수를 줄이는데도 기인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함에 따라 아예 출산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큰 원인이 되는 셈이다(은기수, 2004). 혼인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결혼규범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래 전반적으로 취업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가임여성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은기수, 2001; 전광희, 2002; 김정석, 2006; 조은, 2008; 조희금 외, 2008). 연령별 미혼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로 가임기간의 많은 여성들이 미혼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출산력 수준이 낮아지고, 둘째로 초혼연령의 증가가 늦은 임신과 빠른 임신중절을 초래함으로써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여 잠재적인 출산력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

1) 여기서 출산량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같은 출산의 양적인 측면을 말한다.

2) 결혼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직접적인 요인 외에 향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다(이성용, 2006). 한편 연령별 미혼율의 증가를 독신자 비율의 증가라고 볼지 혹은 결혼 시점의 연기라고 정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생 동안 독신으로 남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시점이 늦더라도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 시점의 연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Goldstein, 2001; 김주성,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혼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 중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 결혼가능성과 관련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적령기 연령규범<sup>3)</sup> 영향력의 변화가 세 시점에서 있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취업, 직업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꼽고 있는데 결혼으로의 이행에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기수, 2006).

### 1. 경제적 기반과 결혼

경제적 기반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 취업, 직업 등의 자원이 결혼가능성을 높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weeny, 2002; 김정석, 2006).

3) 전통적인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이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몇 살 정도에는 결혼을 해야만 하지 않나하고 여기는 연령대가 일반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최근에 이러한 연령규범이 약화되는 징후가 보여지고 있지만, 올드미스(old Miss)들이 명절 때 친족 모임 참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주위로 부터 결혼이 늦어지는데 대해 제기되는 관심과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듯이 결혼에 적절한 연령대가 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있다는 것이다.

&lt;표 1&gt; 미혼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선택기준: 개인적 기준

(단위: %, 다중응답)

	남성 (309)	여성 (244)
성격	30.2	25.9
경제력·직업	18.8	41.0
사랑	19.3	11.9
외모	11.4	4.1
건강	11.1	6.5
기타	6.4	10.7

자료: 장혜경 등 (2004) 《2003년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남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이 시간적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큼 강력해서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편이다.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시장에서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을 높여 준다거나 혹은 경제적 자원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해서 결혼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상반되는 연구들이 있다(Oppenheimer, 1997). 대체로 기존 연구결과들은 남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원은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영향이 남성에 비해 약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전국가족조사에 따르면(표 1 참조),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미혼 여성의 경우 경제력과 직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41%로 다른 기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점은 여성이 결혼할 때 상대 남성이 당연히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혼 남성 역시 배우자의 선택기준으로 경제력·직업을 꼽는 경우가 18.8%로 성격(30.2%)과 사랑(19.3%)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미혼 남성 역시 여성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조건으로 경제적 기반의 영향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장혜경, 2004).

### 1)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초혼연령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연장의 효과를 상쇄하는 교육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고학력의 미혼남성은 결혼시장에서 미래의 배우자로서 선호되며 그 만큼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초혼연령이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숙 외, 2005). 또한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결혼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가능성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가치관 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석, 2006).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상승과 함께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욕구가 강해지며 이것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게 되어 교육은 결혼연령과 매우 강한 정(正)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김두섭, 2007a; 박경숙 외, 2005; Lloyd and South, 1996; Goldsneider and Waite, 1986; 최새은·옥선화, 2003). 이는 여성에게서는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초혼연령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박경숙 외, 2005).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닌 미혼남성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초혼연령이 높은 편이며(김두섭, 2007b), 고학력 남성의 결혼 시기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저학력 남성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외, 2005).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미혼 상태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주성,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표 2> 참조), 남성의 초혼연령은 교육수준별로 큰

<표 2> 교육수준별 초혼 연령

(단위: 세)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남성	1980	27.3	26.7	27.0	27.9
	1990	29.5	28.3	27.9	28.6
	2000	33.1	31.1	29.5	30.0
여성	1980	22.4	23.3	25.2	26.4
	1990	22.9	23.4	25.2	27.4
	2000	25.1	24.5	25.6	28.2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의 효용가치가 교육기간이라는 시간 비용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에 이르면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는 초혼연령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대학교 이상 학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교육수준의 효과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중요한 결혼자원으로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시간적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수준이 낮은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점점 더 결혼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취업과 직업

취업상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Waite and Spitz, 1981; 최재은·옥선화, 2003). 그러나 취업의 효과 역시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인 전망이 밝은 남성일수록 결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 전망이 밝은 여성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결혼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Becker, 1981; 김정석, 2006). 따라서 취업은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결혼 적령기 뿐 아니라 결혼 적령기가 지난 후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남성은 결혼으로의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은기수, 1995).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미혼자들이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은기수, 2005; 김두섭, 2007b). 경제위기는 젊은이들에게 장래의 취업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해서 혼인을 연기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연령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2007a). 한편 미혼 남성들에게는 취업이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가 결혼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혜경, 2004; 은기수, 2005; 김정석, 2006).

직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결혼연령이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에는 농어업 종사자의 결혼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위세와 결혼연령 간에 부(-)의 관계가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김두섭, 2007a).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은 남성에게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결혼 전망을 밝게 해주며, 여성에게는 결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높은 청년 실업률은 미혼 남성의 결혼시기 연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직업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직업위세가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전망이 밝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위세와 결혼전망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 2. 결혼적령기 가치규범의 변화

레스테지(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은기수, 2005; 김두섭, 2007a). 이러한 제2의 인구학적 변환론에 따르면 자녀중심의 가치관에서 자아실현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변화하면서 출산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결혼 시기의 연기를 설명하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결혼이 가족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개인주의적 결혼'으로 변화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규범적 강제성이 감소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혼 및 가족 가치에 대해서는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와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의 가족 모듈(module) 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를 크게 겪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어도 결혼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가치에 있어서 연령별 편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한국사회가 대체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은기수, 2004; 은기수, 2006).

한국사회가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표 3〉 참조).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에서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은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68.8%에 이른 반면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남성 3.1%, 여성 3.6%로 성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5~39세의 11.4%를 제외하고 20대와 30대 초반에서는 2~5% 사이의 응답률을 보였다. 단편적인 설문문항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경우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최근의 결혼적령기 미혼 비율의 증가는 가치관의 영향보다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 연령의 변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그런 기대연령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규범을 내재화하여 규범

<표 3> 18~39세 미혼남녀의 특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사례수	하지않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는편이 좋음	반드시 해야함	모르겠음	P
전체		4,042	3.4	25.7	47.8	21.0	2.1	
성	남자	2,285	3.1	16.3	49.4	28.7	2.5	< 0.01
	여자	1,756	3.6	37.9	45.8	11.1	1.6	
	연령							
	18~19세	503	3.8	28.4	46.1	19.5	2.2	
	20~24세	1,546	2.7	25.9	47.2	22.7	1.5	
	25~29세	1,181	2.0	21.7	50.7	24.0	1.6	< 0.01
	30~34세	619	4.7	26.5	51.1	13.7	4.0	
	35~39세	193	11.4	38.4	29.5	17.1	3.6	

자료: 김승권 등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을 느끼게 된다(한경혜, 1993). 기존연구에 따르면 결혼 시기에 관한 규범은 한국사회에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은기수, 1995).

### Ⅲ. 연구가설과 방법

#### 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자원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1995년, 2000년, 2005년 즉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세 시점에서 결혼시기와 관련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세 시점에서의 미혼 상태에 대한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과 같은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자원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의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결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4)</sup>.

가설 1-1. 남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결혼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가설 1-2.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결혼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가설 2: 경제위기 전후로 성별효과가 다를 것이다.

가설 2-1. 남성의 경우 경제위기 전과 비교할 때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자원의 효과는 결혼 가능성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2. 여성의 경우 경제위기 전과 비교할 때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자원의 효과는 결혼 가능성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익명의 심사자는 최근 교육과 취업상태가 결혼과 내생적(endogenous)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으며(예로 Coppola, 2004; Kalmkijn and Luijckx, 2005), 만약 이러한 내생적인 관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정상의 문제점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설 3: 경제위기 전과 비교할 때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적 자원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변수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5)</sup>. 아래 <표 4>는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과 사례들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본 수는 각 년도 별로 약 35만~38만 명이다.

결혼여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음'을 미혼 상태로,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등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결혼 상태인 경우에 기혼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에서 기혼 비율은 1995년 70.2%, 2000년 68.4%, 2005년 61.7%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혼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세 시점 모두 남성 49%, 여성 51%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결혼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취한 변수는 네 가지로서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이다<sup>6)</sup>. 연령은 거의 모든 결혼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만 20~44세를 연구대상 범위로 하여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등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sup>7)</sup>.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중학교 이하 학력은 크게 줄어든

5) 익명의 심사자도 지적인 것처럼,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여 교육, 취업처럼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이는 변수를 결혼 여부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예를 들어 결혼시점에서 응답자가 취업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과 결혼여부와의 인과성도 확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사건사분석(event-history analysis) 같은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분석방법에 사용할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제약점의 하나이다.

6)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구자료에 포함된 가구유형이나 지역 변수 등도 결혼 결정요인으로 논의되는 변수들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이 경제적 자원에 한정된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7) 분석 대상 연령층을 만 20세~44세로 한정하고 각 5세 단위로 구분한 것은 임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10대와 만 45세 이상에서 결혼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동시에 흔히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초반과 후반 등에 맞추어 구분한 것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최근 학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경향과 교육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성을 반영해서 따로 구분하였다. 취업여부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해왔지만 현재는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취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인 가사, 학업, 실업상태는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의 경우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의 직업분류 코드에 연계하였으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를 따랐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료와 분석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lt;표 4&gt; 변수들과 사례분포

		1995년		2000년		2005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전체	380,048	100.0	376,479	100.0	348,877	100.0
결혼 여부	미혼	113,080	29.8	119,082	31.6	133,625	38.3
	기혼	266,968	70.2	257,397	68.4	215,252	61.7
성별	남성	186,245	49.0	183,486	48.7	170,503	48.9
	여성	193,803	51.0	192,993	51.3	178,374	51.1
연령	20~24세	69,741	18.4	58,444	15.5	54,141	15.5
	25~29세	80,445	21.2	77,305	20.5	65,111	18.7
	30~34세	85,283	22.4	79,404	21.1	75,158	21.5
	35~39세	83,080	21.9	82,202	21.8	76,756	22.0
	40~44세	61,499	16.2	79,124	21.0	77,711	22.3
교육 수준	초등이하	23,079	6.1	12,661	3.4	5,345	1.5
	중학교	49,657	13.1	31,164	8.3	14,585	4.2
	고등학교	188,179	49.5	175,860	46.7	140,999	40.4
	대학교	111,331	29.3	145,235	38.6	173,314	49.7
취업 여부	대학원	7,802	2.1	11,547	3.1	14,634	4.2
	취업	238,360	62.7	231,759	61.6	215,159	61.7
직업	미취업	141,688	37.3	144,703	38.4	133,638	38.3
	전문가/임직원/관리자	25,147	10.6	37,815	16.3	32,939	15.5
	기술자 및 준전문가	32,803	13.8	22,707	9.8	24,184	11.4
	사무직	34,873	14.7	41,254	17.8	45,911	21.6
	서비스/판매직	49,977	21.1	53,446	23.0	44,541	20.9
	농림어업근로자	15,578	6.6	10,291	4.4	7,928	3.7
	기능원	36,956	15.6	26,557	11.4	22,016	10.3
	장치, 기계조작자	29,295	12.4	27,210	11.7	24,305	11.4
	단순노무자	12,473	5.3	12,947	5.6	11,203	5.3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치관과 같은 경제 외적 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둘째,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교육수준의 경우 2005년 현재 20~44세의 대학진학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학 간의 서열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증줄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단순 구분으로는 학력수준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 여부 못지않게 취업형태에 따라 취업상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고용기간에 따른 직업안정성과 임금수준의 차이 등이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할 것이다<sup>8)</sup>.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종속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인데(김순귀 외, 2003; SPSS, 2009), 이때 종속변수가 단지 두 개의 값(여기서의 '결혼 여부'의 예처럼)만을 가지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된다. 여기서 로짓(logit)은 미혼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혼 상태의 교차비(odds ratio)를 산출하고, 아래의 표들에서  $\exp(b)$ 로 나타난다<sup>9)</sup>.

## IV. 분석결과

### 1. 결혼여부 다원분석: 남녀 비교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표 5 참조), 20~44세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을 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여성에게서 연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를 준거로 하였을 때, 남녀별로 효과가 다른 것으

8)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PSS 16.0 이다.

9) 교차비(odds ratio)는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일어날 확률의 비율(the ratio of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an event to that of non-occurrence)'로 정의된다.

10) 그러나 40대 이후에는(40~44세) 연령효과가 남성에서 더 크다.

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력에 비해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1.9배, 고등학교 졸업자는 2.9배, 대학교 졸업자는 2.6배, 대학원 졸업자는 3.7배의 결혼 확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남성들에게서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기회가 양극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결혼 확률이 가장 높은 점은 남성의 경우 교육기간이라는 시간상의 기회비용이 교육 효과를 통해 충분히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로 낮은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결혼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1.5배 정도 높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학원 졸업 학력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비해 결혼하고 있을 가능성이 1/7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반대로 교육기간으로 인해 결혼시기가 상당정도 연기되거나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6.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취업은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 상태가 결혼으로의 이행을 크게 늦추거나 결혼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 여성의 경우 미취업 여성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1/4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적 기반 요인들이 성별로 다르게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sup>11)</sup>. 남성의 경우 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이거나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에 오히려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별로 결혼가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연령대별 차이는 대체로 앞의 전체 집단에서의 경향과 유사하다. 즉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한 가능성이 높고 대체로 여성에게서 연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서 결혼 가능성이 가

11) 유의수준은 사례 수에 민감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같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다는 실질적인 의미(substantive meaning)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 높았지만 대학원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들의 경우에 결혼하고 있을 확률은 기준 범주인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1/4~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준거범주로 하였을 때, 전문가/임직원/관리자, 기술자 및 준전문가, 사무직 같이 상대적으로 직업위세<sup>12)</sup>가 상위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남성의 결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이러한 직업군에서 결혼 가능성이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함께 농림어업근로자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경우 결혼 가능성도 낮은 편이었다.

<표 5> 1995년~2005년 결혼여부에 대한 남녀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성		여성	
	exp(b)	s.e.	exp(b)	s.e.
상수	0.005***	0.030	0.547***	0.036
연령				
20~24세				
25~29세	5.994***	0.020	11.861***	0.012
30~34세	33.076***	0.020	63.521***	0.014
35~39세	113.428***	0.021	152.573***	0.017
40~44세	292.497***	0.023	257.699***	0.022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1.909***	0.027	1.481***	0.041
고등학교	2.914***	0.023	0.773***	0.035
대학교	2.637***	0.023	0.253***	0.035
대학원	3.653***	0.031	0.150***	0.041
취업여부				
미취업				
취업	6.672***	0.012	0.250***	0.009
n	540,182		565,124	
Chi-square	318,010.109		328,238.482	
자유도	9		9	
분류정확도	84.2%		87.8%	

주: \* P<0.10, \*\* P<0.05, \*\*\*P<0.01

12) 직업위세에 관한 논의는 유홍준·김월화(2006) “한국의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을 참조하라.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안정적이고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일 수록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여성에게서는 직업위세가 높을 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1995년~2005년 취업자의 결혼여부에 대한 남녀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성		여성	
	exp(b)	s.e.	exp(b)	s.e.
상수	0.024***	0.037	0.488***	0.07
연령				
20~24세				
25~29세	5.454***	0.022	8.437***	0.020
30~34세	29.648***	0.022	47.332***	0.021
35~39세	104.726***	0.024	129.056***	0.025
40~44세	268.710***	0.027	232.650***	0.030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1.747***	0.031	0.954	0.065
고등학교	2.439***	0.027	0.472***	0.059
대학교	2.018***	0.028	0.269***	0.060
대학원	2.357***	0.037	0.213***	0.067
직업				
단순노무				
전문가/임직원/관리자	2.618***	0.023	0.386***	0.042
기술자 및 준전문가	2.392***	0.022	0.355***	0.043
사무직	2.213***	0.021	0.324***	0.040
서비스/판매직	2.128***	0.021	0.516***	0.040
농림어업근로자	1.150***	0.027	2.379***	0.063
기능원	1.895***	0.020	0.651***	0.049
장치,기계조작	1.944***	0.021	0.585***	0.048
n	427,166		255,189	
Chi-square	161,624.166		159,560.799	
자유도	15		15	
분류정확도	83.0%		85.5%	

주: \* P<0.10, \*\* P<0.05, \*\*\*P<0.01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경제적 자원의 효과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대체로 결혼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1과 1-2는 기각되지 않았다.

## 2. 남성 결혼여부 다원분석: 연도별 비교 (1995년, 2000년, 2005년)

남성의 결혼여부(가능성의 확률)에 대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7〉 참조). 연령의 경우에 최근 연도로 올수록 기준 연령대와 비교한 교차비(odds ratio)의 크기가 각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30대 중반 이후 결혼 확률 교차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13)</sup>.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2005년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의 경제적 자원이 점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에는 초등학교 수준에 비해 대학원 학력은 7.1배 이상 결혼 가능성이 높았으며, 대학교 수준의 학력에 비교해서도 1.6배 이상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 수준의 학력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대학교 학력은 경제적 자원으로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까지 대학수준에서 갖던 경제적 기반의 경쟁력이 대학원 학력수준으로 이동한 결과, 대학원 이상 학력이 취업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아짐으로 인해 학력에 따라 결혼 확률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 남성의 경우 경제위기 전인 1995년에는 미취업자에 비해 7배 이상 결혼확률이 높았지만, 2000년에는 5.7배로 낮아졌으며 2005년에도 5.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3)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연도별로 별도의 모델에서 추정된 교차비를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조사 연도별로 준거 항목에 대한 교차비의 크기를 통계적(statistical) 유의미성이 아닌 실질적(substantive) 유의미성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분석이 제한된다.



<표 7> 남성 1995년, 2000년, 2005년 결혼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1995		2000		2005	
	exp(b)	s.e.	exp(b)	s.e.	exp(b)	s.e.
상수	0.024***	0.048	0.004***	0.054	0.002***	0.071
연령						
20~24세						
25~29세	6.440***	0.028	6.024***	0.035	6.099***	0.048
30~34세	46.518***	0.029	34.372***	0.035	33.039***	0.047
35~39세	191.082***	0.034	132.591***	0.037	111.173***	0.048
40~44세	580.709***	0.046	410.492***	0.042	312.214***	0.050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2.166***	0.041	2.188***	0.048	1.862***	0.062
고등학교	3.587***	0.037	4.670***	0.042	4.171***	0.053
대학교	3.610***	0.037	4.401***	0.042	4.508***	0.054
대학원	4.586***	0.057	5.701***	0.054	7.132***	0.061
취업						
미취업						
취업	7.143***	0.024	5.735***	0.019	5.808***	0.019
n	186,245		183,472		170,465	
Chi-square	116,800.768		109,504.816		99,776.996	
자유도	9		9		9	
분류정확도	85.2%		84.7%		82.8%	

주: \* P<0.10, \*\* P<0.05, \*\*\*P<0.01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취업 여부 자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표 8> 참조)에서도<sup>14)</sup> 연령 변수의 추세는 전체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육수준의 경우에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이 결혼으로의 이행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이지만, 취업자들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때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결혼 가능성의 차이는 전체 남성 집단

14) <표 8>에서 n값의 합은 <표 6>의 취업자 남성 n값과 같다.

의 경우에 비해 많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95년, 2000년, 2005년 각 연도별로 그 격차가 각각 1.27배, 1.30배, 1.58배였던 것에서 1.04배, 1.16배, 1.42배로 줄어들었다.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근로자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업종사자의 경우에 다른 직업종사자에 비해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점은 재확인 되지만, 그 외의 다른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표 8> 남성취업자 1995년, 2000년, 2005년 결혼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1995		2000		2005	
	exp(b)	s.e.	exp(b)	s.e.	exp(b)	s.e.
상수	0.024***	0.058	0.014***	0.066	0.01	0.086
연령						
20~24세						
25~29세	5.984***	0.031	5.537***	0.040	4.908***	0.055
30~34세	42.277***	0.032	31.183***	0.040	25.765***	0.054
35~39세	176.019***	0.037	124.719***	0.043	91.099***	0.055
40~44세	558.144***	0.053	375.581***	0.050	258.886***	0.058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1.963***	0.045	2.128***	0.055	1.707***	0.073
고등학교	2.988***	0.041	4.463***	0.049	3.541***	0.064
대학교	2.939***	0.044	3.929***	0.050	3.504***	0.065
대학원	3.060***	0.068	4.576***	0.065	4.982***	0.075
직업						
단순노무						
전문가/임직원/관리자	2.450***	0.046	2.159***	0.038	2.118***	0.039
기술자 및 준전문가	1.912***	0.041	2.040***	0.039	2.123***	0.037
사무직	1.800***	0.042	2.125***	0.037	2.194***	0.035
서비스/판매직	2.029***	0.040	1.909***	0.036	1.886***	0.035
농림어업근로자	1.069	0.048	1.087	0.047	0.943	0.047
기능원	1.716***	0.039	1.667***	0.035	1.731***	0.035
장차,기계조작	1.804***	0.040	1.839***	0.035	1.765***	0.035
n	155,096		144,359		127,711	
Chi-square	66,724.440		55,131.280		48,165.780	
자유도	15		15		15	
분류정확도	84.0%		83.7%		81.0%	

주: \* P<0.10, \*\* P<0.05, \*\*\*P<0.01

결혼 확률의 실질적인 차이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성의 경우에 경제위기 이후 대체로 경제적 자원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설 2-1은 기각되지 않는다.

### 3. 여성 결혼여부 다원분석: 연도별 비교 (1995년, 2000년, 2005년)

여성의 결혼여부(가능성의 확률)에 대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9〉 참조). 연령의 경우에 30대 중반 연령대까지는 기준 연령대와 비교한 교차비(odds ratio)의 크기에 연도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표 7에서 살펴 본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 여성의 결혼여부 교차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40~44세 연령대의 경우에 1995년과 2000년에는 20~24세의 준거 연령대에 대한 교차비가 남성보다도 오히려 낮았지만 2005년에는 더 높아졌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로 결혼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준거로 산출한 교차비의 크기를 연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결혼 확률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원 졸업 여성의 경우에 1995년에는 결혼 확률이 초교졸업자에 비해 1/10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1/5로 줄고 2005년에는 1/2 수준으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 여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sup>15)</sup>.

취업을 한 경우 세 시점 모두 미취업에 비해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취업여부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취업 여부 자체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취업이 오히려 결혼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취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가

15) 구성 비율이 매우 낮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준거범주가 된데서 발생한 치우침(bias)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교차비(odds ratio)의 상대적 크기가 보여주는 일정한 추세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본다.

&lt;표 9&gt; 여성 1995년, 2000년, 2005년 결혼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1995		2000		2005	
	exp(b)	s.e.	exp(b)	s.e.	exp(b)	s.e.
상수	1.272	0.056	0.338	0.063	0.094	0.074
연령						
20~24세						
25~29세	12.637***	0.019	13.217***	0.021	12.945***	0.027
30~34세	75.963***	0.026	74.395***	0.025	73.877***	0.028
35~39세	140.322***	0.033	187.980***	0.032	206.651***	0.032
40~44세	224.935***	0.048	291.312***	0.039	430.840***	0.0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1.077***	0.062	1.663***	0.072	2.408***	0.087
고등학교	0.514	0.055	1.124	0.061	1.935***	0.071
대학교	0.176***	0.055	0.380***	0.061	0.844**	0.070
대학원	0.103***	0.077	0.214***	0.073	0.527***	0.077
취업						
미취업						
취업	0.179***	0.017	0.275***	0.016	0.319***	0.016
n	193,803		192,989		178,332	
Chi-square	112,301.430		111,380.040		107,962.120	
자유도	9		9		9	
분류정확도	88.7%		88.4%		86.9%	

주: \* P<0.10, \*\* P<0.05, \*\*\*P<0.01

능성이 높아지는 경향과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 결혼여부 교차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표 10> 참조<sup>16)</sup>).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 여성들에게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시기 연장의 영향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기간은 대체로 결혼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학력 차에 따른 결혼 가능성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직업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 모두 단순노무직에 비해 2배 이상 결혼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직종의 결혼

16) <표 10>에서 n값의 합은 <표 6>의 취업자 여성 n값과 같다.

확률은 준거 범주에 비해 모두 낮았다. 다시 말해, 전문가/임직원/관리자, 기술자 및 준전문가, 사무직 등과 같이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군에서는 세시점 모두 단순 노무직에 비해 결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5년에 이르면 이들 직군과 단순노무직 사이의 결혼 가능성의 차이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여성의 경우에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커지면서 결혼으로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던 가설 2-2는

<표 10> 여성취업자 1995년, 2000년, 2005년 결혼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1995		2000		2005	
	exp(b)	s.e.	exp(b)	s.e.	exp(b)	s.e.
상수	0.764	0.101	0.368	0.128	0.138	0.155
연령						
20~24세						
25~29세	8.569***	0.030	9.332***	0.035	8.382***	0.045
30~34세	53.191***	0.036	54.634***	0.038	48.313***	0.046
35~39세	104.299***	0.044	153.603***	0.045	162.353***	0.049
40~44세	158.54***	0.060	255.144***	0.054	358.182***	0.056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0.831**	0.091	0.980	0.119	1.302	0.153
고등학교	0.376***	0.083	0.609***	0.108	0.905	0.135
대학교	0.277***	0.087	0.350***	0.110	0.511***	0.136
대학원	0.203***	0.117	0.279***	0.123	0.433***	0.143
직업						
단순노무						
전문가/임직원/관리자	0.409***	0.069	0.370***	0.078	0.506***	0.078
기술자 및 준전문가	0.286***	0.065	0.347***	0.081	0.482***	0.080
사무직	0.226***	0.062	0.356***	0.076	0.516***	0.076
서비스/판매직	0.509***	0.060	0.590***	0.075	0.556***	0.075
농림어업근로자	2.286***	0.092	2.085***	0.121	2.978***	0.125
기능원	0.616***	0.071	0.636***	0.091	0.668***	0.096
장차,기계조작	0.532***	0.077	0.694***	0.090	0.762***	0.087
n	82,006		87,867		85,316	
Chi-square	55,847.272		54,335.780		51,006.655	
자유도	15		15		15	
분류정확도	86.7%		85.9%		84.7%	

주: \* P<0.10, \*\* P<0.05, \*\*\*P<0.01

기각되었다. 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여성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성별 효과(가설 2)는 남성의 경우에만 그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연령의 영향력은 성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결혼 적령기 연령규범 인식에서 '결혼적령기'는 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이 연령대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1995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의 시점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 교차비가 상대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연령대의 연령 교차비가 시기에 따른 큰 증감없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30대 중반 이후 연령대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준거 연령대에 대한 교차비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여성들의 경우 2000년도 이후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이 약화되면 소위 '적령기' 이후로 결혼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전과 비교할 때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적 자원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할 가설 3을 기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sup>17)</sup>.

## V. 결론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결혼에 미친 영향력은 성별로 달랐으며 경제적 자원은 남성에게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17)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연령대별 교차비의 크기 비교만으로 연령규범 효과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연령효과에는 출생 코호트(cohort)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연령과 결혼 가능성 간에 비선형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하는 연령규범 효과 분석은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 탐색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여성에게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전통적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경향도 성별로 달랐다. 남성의 경우에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학력은 교육기간이라는 시간상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직업의 경우는 직업위세와 결혼 가능성이 정(+)<sup>2</sup>의 관계를 보였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경제위기 이후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결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원 이상 학력 남성이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으로의 이행에 취업상태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취업이냐에 따라 결혼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단순히 취업여부 혹은 대졸 학력인지 여부 보다는 자원의 질적 측면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결혼으로의 이행에 대체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는 결혼 이후 출산, 육아 등이 취업과 양립하기 어렵고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교육, 취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일종의 기회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학력, 취업,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대체로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직업에 있어서는 농어업 종사자와 단순직 종사자의 결혼시기가 빠른 반면에 사무직, 준전문가, 전문가의 경우에는 결혼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직업 위세와 결혼가능성 간에는 부(-)<sup>2</sup>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졸 이상 수준의 여성이 크게 늘어난 현실과 여성들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나이가 차면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의 영향력을 확인해 본 결과, 연령이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의 경우에는 30대 중반 이후 결혼 확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중반 이후 준거 범주보다 결혼 확률이 오히려 커진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여자 나이 30세 넘으면 이미 결혼이 늦었다’는 식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상당히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치관과 같은 경제 외적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경제적 자원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 같은 태도 변수를 매개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대신,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보수적이라는 기존 연구들(김승권, 2003; 은기수, 2006)의 입장을 수용한 상태로 경제적 요인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수준과 취업, 직업의 종류 같은 경제적 자원의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못했다.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 안에서도 수도권 명문대학이나 지방대학이냐에 따라 취업기회 및 결혼시장에서의 현실적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 수준 내에서의 질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계이다. 더불어 취업형태의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혼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와 직업만으로 경제적 자원 효과를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김두섭 (2007a) 《IMF 경제 위기와 한국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_\_\_\_\_ (2007b)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김승권 (2004) “최근 한국 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1-34.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주성 (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 역할 분리 규범, 경제조직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_\_\_\_\_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 간격의 관계” 《한국인구학》 35(6): 105~139.
- \_\_\_\_\_ (2004)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제1차 한국종합조사(KGSS) 심포지엄》: 181-2050.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보건복지포럼》 4: 25-35.
- \_\_\_\_\_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장혜경 (2004)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178-210.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험” 《한국여성학》 24(2): 5-37.
- 조희금·어성연·고선강 (2008)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125-132.
- 최새은·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8(1): 53-73.
- 통계청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한경혜 (1993) “사회적 시간과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한국사회학》 27: 295-317.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Coppola (2004) “Education and Union Formation as Simultaneous Processes in Italy and Spai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219-250.

- Goldstein, T. K.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506-519.
- Goldsheider, F. K. and L. J. Waite (1986) "Sex Difference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91-109.
- Kalmijn and Luijckx (2005) "Ha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Marriage Changed for Men?" *Population Studies* 59(2): 211-231.
- Lloyd, K. M. and S. J. South (1996) "Contextual Influences on Young Men's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Social Forces* 74(3): 1097-1119.
- Oppenheimer, V. K. (1997) "Woman's Employment and Gains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94: 563-591.
- Sweeny, M.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 132-147.
- Waite, L. J. and G. D. Spitze (1981) "Young Women's Transition to Marriage" *Demography* 18: 681~694.

##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Marriage-Delaying

*Hong Joon Yoo · Sung Min Hyun*

One of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lated to the delayed marriage among the population belong to marriage cohorts.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economic resources such as level of education, whether employed or not, and occupation have affected one's marriage opportunity and how it is differed by gender. Meanwhile, the changes in the influence of economic resources and the changes in the marriage norms were also studied by analyzing 2% Census data in 1995, 2000 and 2005. Total number of 1.1 million men and women in their ages between 20 to 44 are included in data and binary-logistic analysis is used for statistical research. This study supports a traditional hypothesis that the influence of economic resources on probability of marriage is different by gender. More important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quality of economic resour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men since Asian economic crisis an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it on women is declining since 2000.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marriage norm has recently decreased on the part of wom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tendency of polarization of marriage market in Korea affected by economic polarization since Asian economic crisis.

**Key Words:** Economic resources, Gender, Marriage norm, Delayed marriage, Polarization of marriage market